

2020. 6.19 (금)

## 이진우의 전략에세이



▲ 투자전략

Analyst 이진우

02. 6454-4890

jinwoo.lee@meritz.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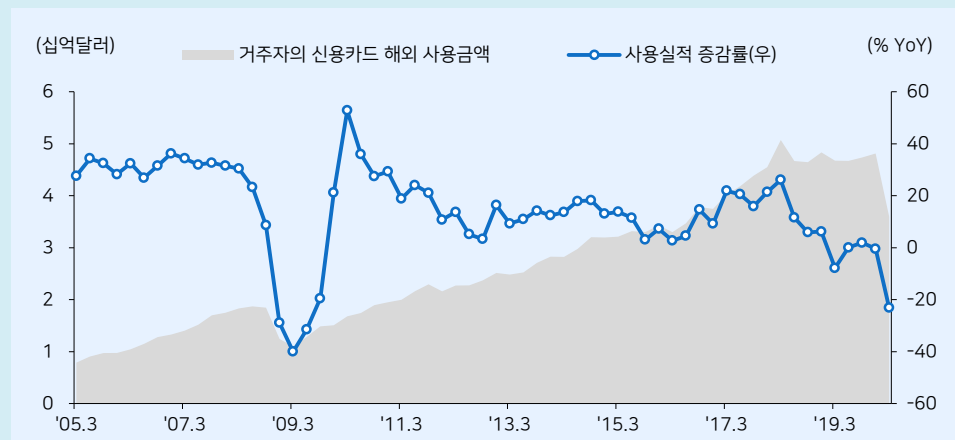
## Stay at 'Home' → Stay in 'Country'?

COVID19 이후의 주목 받은 Theme은 한국은 '언택트(Untact)', 미국은 'Stay at Home' 기업들입니다. 생활 속의 변화를 반영한 결과이죠. 여전히 바이러스는 우리를 위협하고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강도는 무뎠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과정에서 관련 기업도 옥석이 가려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일시적 수혜를 본 기업과 구조적 변화를 반영하는 기업처럼 말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Data' 관련 기업은 구조적 변화를 대변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장 내 큰 이견은 없습니다. 관건은 'Stay at Home' 으로 분류됐던 기업군입니다. COVID19가 무뎠다면 그 동안 반사이익으로 수혜를 봤던 기업 중 실적 개선의 연속성이 있는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군이 구분될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좀 더 다양한 생각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Stay at Home' 이 아닌 'Stay in Country' 관련 기업도 하나의 예일 것입니다. 바이러스가 완화되더라도 당분간 소비가 해외보다는 국내에 머물 가능성이 높다면 (ex, 해외여행 제한), 역내에서 새롭게 수요가 창출될 수 있는 산업군을 눈 여겨 봐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 규모는 얼마나 될까요? 2019년말 기준 국내 소비자의 연간 해외 사용액(신용카드 기준)은 189억 달러, 약 23조원입니다.

## 국내 신용카드 해외 사용금액: 2020년 1Q는 전년비 -23%, 2Q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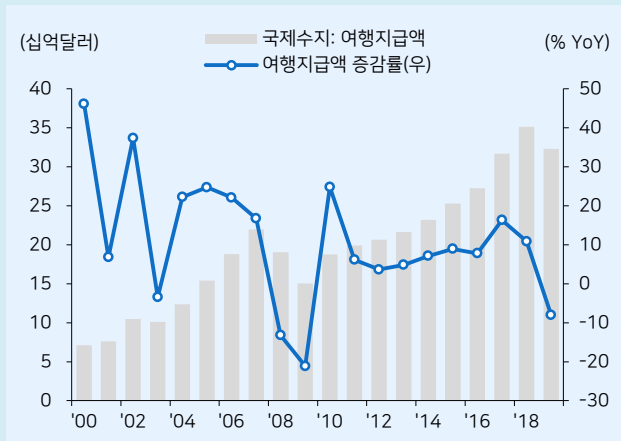
주: 2020년 1분기 기준

자료: 한국은행,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좀 더 큰 범주인 국제수지(여행지급액)로 보면 2019년말 기준 323억달러(약 39조원)입니다. 약 23조원~39조원의 시장 규모란 뜻입니다. 물론 기존 해외소비액이 국내에서 모두 소비 된다는 가정을 하기는 어렵지만 말입니다. 해외 소비 위축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분기별 신용카드 해외 사용액으로 보면 작년 3분기는 47억달러, 4분기는 48억 달러를 기록했지만, 올해 1분기는 36억 달러로 전년비 23% 급감했습니다. 이번 2분기 데이터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이보다 크게 감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떤 산업군을 봐야 할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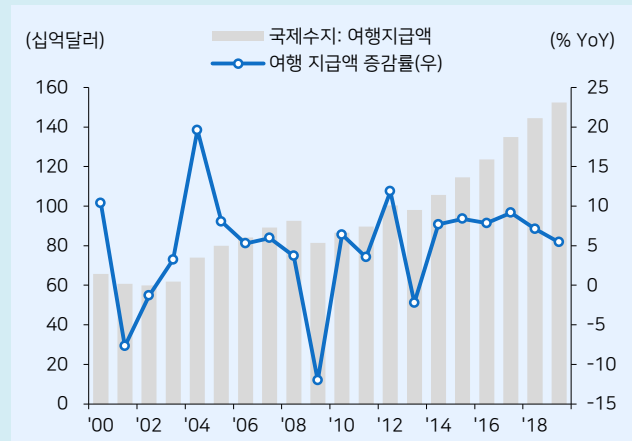
미국시장의 흐름을 눈 여겨 볼만합니다. 규모 면에서 본다면 미국인의 해외여행지급액은 1,523억달러(약 183조원)으로 국내 시장의 5배에 달하고, 가장 최근의 COVID19 이후의 트렌드를 반영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지하고 계시듯이 지난 5월 미국 소매판매(전월비 +17.7%)는 시장에 서프라이즈를 주었던 것도 있지만, Lockdown 완화 이후 소매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습니다. 봉쇄가 완화되면 소비자들이 어떤 품목을 구매할 지가 궁금했지 때문이죠.

한국 해외여행 지급액: 2019년 323억 달러



자료: 한국은행,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미국 해외여행 지급액: 2019년 1,523억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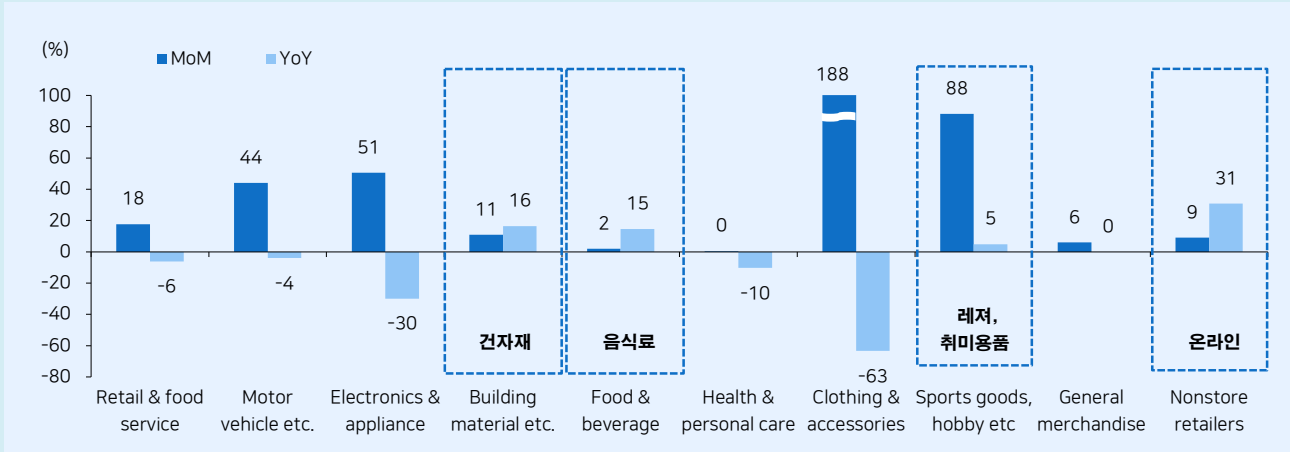
자료: Bureau of Economic Analysis,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결과는 이렇습니다. 대부분의 품목(산업)이 전월비 V자 회복을 보였지만 이중 가장 눈에 들어온 것 '건자재(주택 용품)'와 '레저용품(캠핑 등) 및 취미' 관련 산업입니다. 전월(4월)대비 뿐만 아니라 전년대비로도 성장세가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비슷한 패턴을 보인 곳은 온라인(Nonstore retailers)과 음식료 산업으로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분야입니다.

최근 미국 내 레저 및 취미(캠핑 등)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COVID19의 한복판 보다 최근 더 주가 흐름이 강한 이유도 여기에 있는 듯합니다. 시장 대비 아웃퍼폼한 시기도 5월 이후부터입니다. 국내도 이러한 흐름과 유사할 것이라 단정지을 수는 없지만 관련된 사업, 매출 동향도 점검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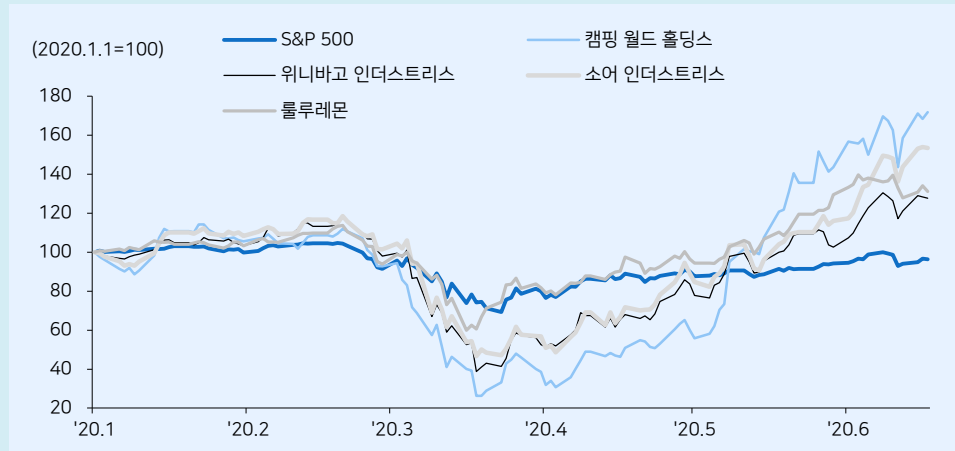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5월 미국 소매판매 주요 업종 Breakdown: 전월 & 전년비 개선된 곳은 온라인, 음식료에 이어 '건자재, 레저& 취미'



자료: U.S. Census Bureau,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미국 레저용품(캠핑, 의류) 업체들의 주가 성과: Lockdown 완화 이후 오히려 선전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